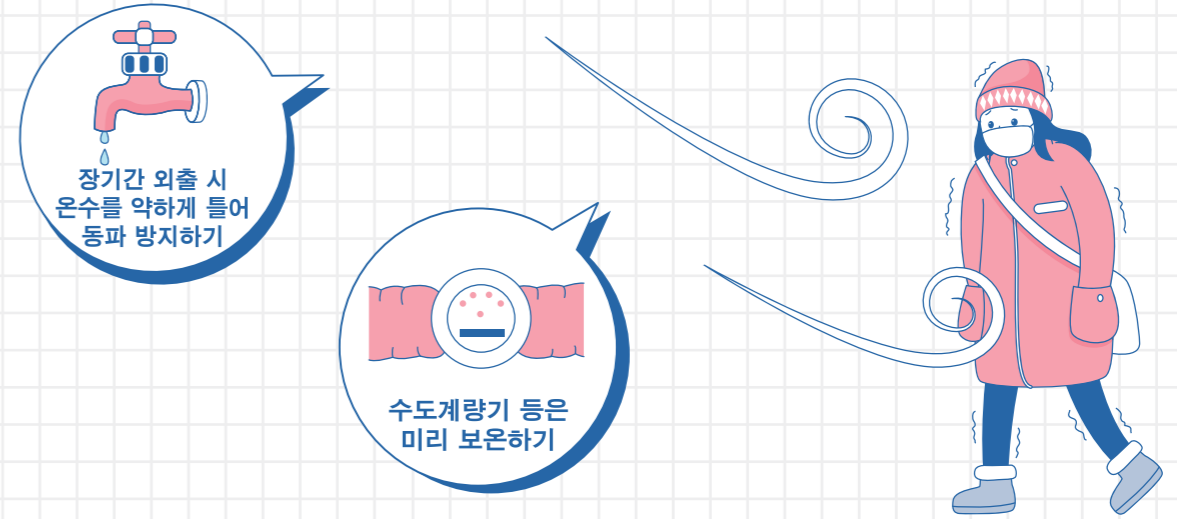


동파 걱정은 이제 그만! 겨울철 수도관 및 수도계량기 관리 요령

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 수도관이 얼어붙고 심하면 동파되어 수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단수로 인한 불편까지 감수해야 한다. 또한, 흘러나온 물이 얼어붙어 자칫하면 미끄러져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.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미리 수도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붙지 않도록 관리해주어야 한다.

글 편집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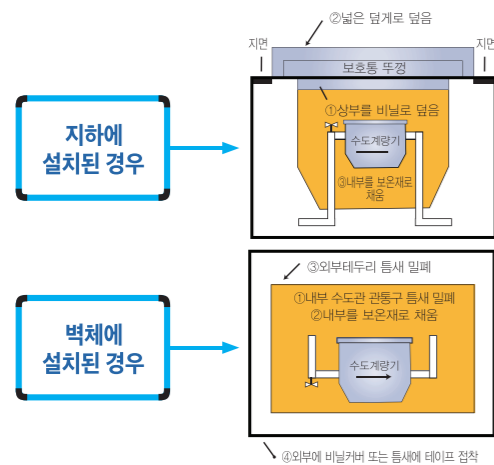


수도시설 동결(동파) 예방요령

계량기 보호통 내 보온재(스티로폼)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 파손 시 교체하고 인조 숲, 헝겂, 폐담요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호통 내 배관 및 계량기 등에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보온해야 한다.

- 혹한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을 흐르게 하고 받아서 사용하면 대부분의 수도시설물 동결(동파)을 예방할 수 있다.
- 노출된 수도관은 동결(동파)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온재 등을 사용하여 외부 차가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한다.
- 계량기 보호통 내 누수나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.

계량기 보호통(함) 보온방법



수도계량기 동결 시 조치요령

- 수도계량기 옆 밸브 손잡이를 회전시켜 회전이 안 될 때는 수도배관 동결을 의심해보아야 한다.
- 동결 시 드라이기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여 점점 뜨거운 물을 부어 녹인다.
-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상하수도사업소로 신고한다.



상수도 공사와 수리비용

- **급수관부터 계량기 전까지 얼었을 때**
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 신고하면 처리된다.
- **계량기부터 집안까지 얼었을 때**
수용가(사용자)에서 처리한다.
- **계량기가 동파되었을 때**
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 신고하면 교체가 가능하다(아파트 및 상가는 관리사무소에 문의).
- **계량기 이후 집안까지 수도관이 동파되었을 때**
수용가(사용자) 측이 직접 자비로 수리해야 한다.

급수설비의 관리자

- 급수관부터 계량기까지 →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
- 계량기 이후부터 집안까지 → 수용가(사용자)

수도계량기 보온재 무료 배부

- **배부대상** 상습동결지역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
※ 벽체용 계량기는 제외
- **규격** 수도계량기 15, 20, 25mm만 해당
- **배부기간** 소진 시까지
- **배부장소**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
☎ 031) 8075-4531~4

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사업

20년이 경과된 주택 및 시설 내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

지원 1순위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수급자 소유주택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사회복지시설

지원 2순위 세대당 전용면적 50㎡ 미만의 공동주택(지원금액 최대 50만 원)

연면적 80㎡ 미만의 단독주택(지원금액 최대 80만 원-접수순으로 처리)

※ 공사비 지원 제외대상: 재개발, 재건축, 리모델링 등의 사업승인 건축물(문의 031-8075-4533)